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다 혜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상 경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다 혜

박다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월

위원장 김 혜 경



부위원장 박 정 민



위원 강 상 경



국문초록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다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의 10차 아동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친부모가 아동에 가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중복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가 또래애착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인가?, 둘째, 또래애착과 아동의 공격성은 부적인 관계인가?, 셋째,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 수준이 달라지는가?” 이다. 첫째와 셋째 연구문제의 경우 다시 세 가지 하위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중복학대 각각의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 및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모형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는 일반긴장이론과 사회유대이론이다.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2015년 10차 아동부가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즉 11세~13세에 해당하는 아동 406명이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22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OLS(Ordinary Least Squares) 추정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형별 부모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 결과 첫째, 부모의 신체적 학대와 중복학대 경험이 있을 때 피해 아동의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중복학대 경험아동의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과 학대 피해 없는 아동 간의 공격성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학대 피해와 비행친구의 영향 등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또래애착과 아동 공격성이 부적인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또래애착과 공격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신체학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또래애착에 의해서 조절되었다. 즉,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학대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애착이 신체학대 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또래애착이 이렇게 공격성 증가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 피해만 있는 아동에게서 확인되었으며, 가장 공격성이 큰 폭으로 증가한 중복학대 아동의 경우 또래애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공격성 증가가 완화되지 않아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첫 번째 연구문제 해결과정에서 정서적 학대와 아동 공격성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래애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동이 또래에게까지 낮은 애착을 가질 때에는 아동이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는 새로운 집단 특성이 드러났다. 나아가

정서학대 피해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이 또래애착 정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정서학대 피해 아동이 취약상태에 놓여 있어 또래 사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그간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 보던 친부모 학대 피해를 그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아동복지 실천현장에서 학대 피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개입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초등학생 공격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아동이 바람직한 발달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가족 체계 밖에 존재하는 또래와의 애착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활용하는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학교에 다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수집되어 학교 밖 아동까지 설명하지는 못하는 점, 또래애착의 보호요인 효과가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으로만 한계적으로 확인된 점 등이 있다. 통계적인 아쉬움으로는 단일시점 자료를 활용한 횡단분석이라는 점, 학대 피해가 피해 여부라는 명목 수준으로 설정되어 피해아동 내의 피해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으므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가 지금보다 충분히 축적된 이후 보다 발전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요어 : 부모학대, 아동학대, 중복학대, 또래애착, 공격성, 아동발달

학 번 : 2016-20209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문제	5
제2장 문헌고찰	6
제1절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6
제2절 또래애착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15
제3절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	18
제4절 그 외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5
제1절 연구모형	25
제2절 연구가설	26
제4장 연구방법	28
제1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28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29
1. 종속변수	29
2. 독립변수	30
3. 조절변수	31
4. 통제변수	32
제3절 연구모형의 분석방법	34
제5장 연구결과	35
제1절 조사대상자 특성	35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5
2. 조사대상자의 학대 피해 현황	37
제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40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40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41
제3절 가설검증	44
1.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45
2. 또래애착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48
3. 부모의 학대에 대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50

제6장 결론

제1절 분석결과 요약	57
제2절 논의	60
1. 부모의 학대 · 또래애착과 아동의 공격성	60
2.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61
제3절 연구의 함의	64
1. 이론적 · 방법론적 함의	64
2. 실천적 · 정책적 함의	66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70

참고문헌	72
------------	----

표 목차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5
〈표 5-2〉 조사대상자의 학대피해 빈도	38
〈표 5-3〉 조사대상자의 학대피해 현황 (중복학대 포함)	38
〈표 5-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40
〈표 5-5〉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43
〈표 5-6〉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46
〈표 5-7〉 또래애착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49
〈표 5-8〉 부모의 학대에 대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52

그림 목차

[그림 3-1] 연구모형	25
[그림 5-1] 신체학대 피해와 공격성 관계에 대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	54
[그림 5-2] 정서학대 피해와 공격성 관계에 대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	5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아동기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하여 사회적 기술 습득 및 새로운 형태의 사고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Piaget, 1964). 이러한 아동기에 공격성이 발달하면 이후 청소년 및 성인기에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동과 부적 발달결과가 나타난다(강미량 & 염시창, 2008; 이해정, 위슬아, & 김범준, 2015; Vitaro et al., 2001). 공격성은 ‘타인 및 자신이 속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 양식 및 속성’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초등학교의 폭력성 및 공격성이 점차 문제시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초등학교생이 자살하는 충격적 사건이 2011년에 발생한 이후 10대들의 폭력성 범죄가 여러 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의 아들과 재벌 손자가 동급생인 초등학교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큰 화제가 된 바 있고,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생들이 1학년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서정호, 2017). 교육부가 전국 초4부터 고2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응답자 419만 명)에서 학교 폭력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 총 37,000명 가운데 약 71.35%가 초등학교생으로 중학생의 네 배, 고등학교생의 다섯 배로 나타난 것 또한 초등학교생 집단의 공격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교육부, 2017).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학교폭력 저연령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치안정책연구소, 2017). 따라서 앞으로 이들 집단에서 추가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피해학생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기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복지 실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아

동학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대중들은 주요 학대가해자가 혈육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타인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친부모이다(류이근 외,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실제 학대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몇 년째 지속되어온 것이다(보건복지부, 2016). 친부모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사건은 부지기수인데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1살 학대 소녀 탈출 사건이 알려졌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장기 미출석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원영이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과거 가족 내 부모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아동 체벌에 상대적으로 관대하던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류이근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범죄 피해자로서 장기간 공격적 행동에 노출되어 있었음에 주목하여 학대피해가 이들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긴장이론을 내세운 애그뉴에 의하면 이러한 학대피해는 부모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제시하여 긴장이 생겨난 대표적인 예이다(Agnew, 1992). 아동학대는 성인인 부모가 발달 초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우 불공정한 관계 특성을 띠는 동시에, 아동과 부모 간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권위관계에서 일어나므로 특별한 외부적 개입이 없을 시 그 피해가 가정 내에서 은폐 또는 지속되기가 쉽다. 긴장은 이렇게 심각성을 떨 때 더욱 강하게 아동의 비행유발을 야기한다(Agnew, 2001).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 학대 피해를 입은 자녀의 공격성 및 비행정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정기원 & 서현숙, 2007; Chen, Coccaro, Lee, & Jacobson,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을 학대 피해 아동으로 하여, 학대 피해가 이들의 공격

성과 관련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유아기 이후인 아동기는 학령기에 접어들며 가족 이외의 집단과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아동을 연구할 때에는 이와 같은 또래집단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아동기의 또래애착은 범죄 등의 문제 행동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Hirschi, 1969). 즉 친구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으면 아동 및 청소년은 이를 잃지 않기 위해 일탈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또래애착 형성에 실패한 경우 원망과 함께 폭력이 증가한다는 설명으로 사회유대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도 있는 반면(김선주 & 김영희, 2012; Dodge, Bates, & Petit, 1990), 아동기인 초등학교생은 또래와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도 스스로 도덕성 등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 친구의 비행행동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송지영 & 박성연, 2010; Kupersmidt, Burchinal, & Patterson, 1995). 위와 같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참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이론과 경쟁적인 이론인 차별접촉이론을 고려하여, ‘비행친구’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연구 질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 친한 친구의 비행 정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또래 간 애착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또한 또래애착의 주효과를 살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을 방어하는 보호요인으로 또래 애착이 기능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그 이유는 같은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적응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개입 방안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수(응답 아동의 성별, 아동의 학교 성적, 아동이 속한 가구형태, 속한 가구의 저소득층 해당여부)들의

영향을 통제하는 연구 모형을 설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한다. 1970년대 Kempe와 Helfer에 의해 학대 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학대의 유형이 학문·법적으로 세분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 및 또래애착이 학대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 기존선행연구에서는 학대의 종류를 구분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일부 존재하는 연구들은 포괄적인 학대 피해 측정 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아쉬움이 있다. 더욱이 비행 및 공격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차별접촉이론의 설명력 확인 등을 이유로 그 대상을 주로 청소년기인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들 집단에 비하면 아동기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학대 피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풍부히 축적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학대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단일한 피해 및 중복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꾀하려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아동이 또래에 대하여 가지는 애착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은 유아기 이후를 말하고, 학령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와 관련된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도 표본의 전국 대표성이 높은 한국복지패널의 10차(2015년) 아동 부가 조사를 활용한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유형별 부모의 학대 및 또래애착이 각각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형별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또래애착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확인한다.

제2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인가?

연구문제 1-1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인가?

연구문제 1-2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인가?

연구문제 1-3 부모로부터 받은 중복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인가?

[연구문제 2] 또래애착과 아동의 공격성은 부적적인 관계인가?

[연구문제 3]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 수준이 달라지는가?

제2장 문헌고찰

제1절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격성은 개념적으로 분노, 적의, 증오, 불안, 원한 등 다양한 감정에 의하여 개인 또는 사회에 극심한 손해 또는 상해를 야기하는 행동 및 충동을 의미한다(Coie & Dodge, 199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행동의 속성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공격성 여부를 행동의 의도성에 따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관찰이 용이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기도 한다(Orpinas & Frankowski, 2001). 그러나 생각건대 두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공격성에는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신체적, 언어적으로 타인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행동 및 그러한 생각”이라는 포괄적 정의가 필요하다(Olweus, 1994). 국내에서 빈번히 인용된 Buss와 Durkee의 공격성 측정 문항 또한 “나는 자주 싸운다”와 “나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때려 주고 싶을 때가 많다” 등 공격 행동과 공격 의도 모두를 측정하고 있다(Buss & Durkee, 1957).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공격성을 측정할 때 행동과 의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공격성(aggression)은 유사개념어인 폭력(violence)과 구분된다. 폭력(violence)은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위협을 주거나 실제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뜻하지만(Mercy et al., 1993), 공격성은 신체적 구타 뿐 아니라 따돌림, 소리 지름 또는 위협 등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행동을 의미한다(Loeber & Hay, 1997). 즉 폭력은 극단적인 손상을 가하는 공격을 말하므로, 모든 폭력을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반대로 모든 공격을 반드시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Anderson & Bushman, 2002). 본 연구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아동 발달문제에 관심을 갖고자, 유사

한 두 개념어 중에서 공격성을 택하여 측정할 것이다. 특히 아동의 경우 실제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발달 단계상 신체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불능(不能)에 의하여 공격성이 최종적인 폭력의 형태로 표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타인 및 자신이 속한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 양식 및 속성’이라고 정의하고, 인간발달단계 중에서 특히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아동을 살피고자 한다. 아동기에는 수많은 발달과업이 존재하며 이것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할 때 공격적 행동이 표출될 우려가 있는데(김현실, 2003), 실제로 다른 발달 단계에 비해 아동후기 및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성이 가장 높다(Karriker-Jaffe et al., 2008). 또한 아동기 공격성을 방치할 경우 이후의 청소년 및 성인기에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동이나 또래거부, 우울 등 부적응 결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Bierman et al., 2004; Fite et al., 2012), 이들에 대한 초기 개입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동기의 여러 특성 요인 중에서도 공격성이 유일하게 청소년기의 폭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Nagin & Tremblay, 1999). 마찬가지로 Huesmann 등(1984) 학자들이 22년간 600명의 피험자를 추적 연구한 결과, 8세 아동의 공격성이 성인기 공격성, 범죄행위, 배우자 학대를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다.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동기의 공격성은 그 자체가 종단적으로 매우 안정된 수치를 보이면서도(Emmerich, 1966), 이외의 부정적 발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달 지표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행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까지 대부분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청소년기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 집단에 비해 아동기에 관한 연구는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만큼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국내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사회의 아동 공격성에 주목하여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이후의 발달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연구에 앞서 ‘공격성’과 함께 아동·청소년기의 또 다른 대표적 문제인 ‘비행’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으로 입증한 연구들이 존재하며(강미량 & 염시창, 2008; Vitaro et al., 2001), 최근에는 종단적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이 나타날 만큼 그 둘은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이혜정, 위슬아, & 김범준, 2015).¹⁾ 이에 대해 김현실(2003)은 이를 폭력이 결국 인간 자신에게 내재된 공격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보다 풍부한 문헌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격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이와 깊은 연관이 있는 폭력성 비행을 관찰한 일부 연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아동학대’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권민정 & 박주희, 2015). 외국에서는 아동학대가 1970년대부터 문제시되었으나 권위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문화권인 한국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01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의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36.0%와 8% 라는 괄목할 만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16). 이는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학대 소녀 탈출 사건, 원영이사건 등 추가적으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알려지면서(서정호, 2017),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등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류이근, 2016).

1) 단 이러한 연구들에서 비행은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재산성 범죄보다는 주로 폭력성 비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학대 가해자 특성을 살펴볼 때, 가해자 대부분이 친부모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대중들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의 영향으로 유치원 교사 등 친족관계 없는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를 과대평가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류이근 외, 2016). 이러한 사실은 친부모가 아동과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가장 많은 주 양육자이며, 그들의 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사회적 현실과도 관계가 깊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9,348건으로 전체의 79.8%에 육박한다(보건복지부, 2016). 본 연구는 이렇게 아동학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발달 초기 단계인 아동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1차 집단인 가족 체계의 지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이들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 입각하여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한다. 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전통적 긴장이론의 경우, 구조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공통적인 문화적 목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다원화된 현재사회를 설명하기에는 일면 적합하지 못한 이론이다(Agnew, 1992). 시기적으로도 아동과 청소년 집단은 발달을 마친 성인에 비해 사회 공통의 목표를 내재화하는 정도가 낮으므로, 이들의 비행에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긴장’이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Agnew, 1992).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이 아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에는 일반긴장이론이 적합하다.

일반긴장이론의 핵심인 긴장은 “한 개인이 대우받고자 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관계”이다(Agnew, 1992). 긴장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 둘째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과 같이 긍정적 자극이 손실되는 경우, 셋째

범죄피해와 같이 부정적 자극이 제시되는 경우이며,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는 바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Rivera & Widom, 1990). 또한 애그뉴가 제시한 긴장의 대표적 속성에 비추어 보건대 아동학대는 불공정한 속성을 지니며, 특별한 외부의 개입이 없으면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가족 내 권위체계에 의해 아동이 입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긴장의 '심각성'이 높아져 비행이 더욱 강하게 유발할 것이다(이순래 & 이경상, 2010). 다시 말하면 학대 피해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긴장이론의 설명력은 매우 높을 것이다(Agnew, 2001).

실제로 부모로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여러 문제 상황에서 다른 아동들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Graybill, Mackie, & House, 1985; Haskett, 1990).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 과정에 장애가 되어 사회부적응, 범죄 등 다양한 문제 행동까지 초래한다(김미정 & 염동문, 2012 ; 이명진, 조주연, & 최문경; 2007; Brown, 1984; Calvete & Orue, 2012; Colman & Widom, 2004; Luntz & Widom, 1994). 국내에서는 정기원과 서현숙(2007)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는 아동이 그 외의 아동에 비해 청소년기에 높은 공격성과 비행행동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그러한 피해 아동 중에서도 가정폭력을 단순 목격하는 아동보다는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이 청소년기 공격성이 훨씬 높다고 하며 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성급히 일반화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동기에 집중하여 학대피해의 성격과 공격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기에 그 특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학대 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학문적인 개념이 등장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주로 아동학대란 신체적 학대를

의미하였으나(Kempe & Helfer, 1974), 점차 그 유형이 세분화되어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 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부모 등이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아동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힌 것을 뜻하고,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법(감금 등)으로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동에게 위협을 가하여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윤혜미, 1997). 성적 학대는 성인이 본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요구 및 강요하는 것을 뜻하며, 성적 폭행과 성적 착취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마지막 유형인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신체적 방임, 지도의 소홀, 의료적·정서적·교육적 방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홍미 & 김효진, 2007). 방임에 관하여 Bornston과 Coleman(1956)은 어머니의 자녀 무시 행동과 해당 자녀의 공격성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며 방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나 Reidy(1997)는 방임 피해 아동과 비교하면 방임 이외 유형의 학대피해 아동이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하여, 방임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낮다고 지적하였다.

기존 연구가 지니는 한계는 위와 같이 학대의 유형이 학문적, 법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의 영향력을 다루는 초기 연구로서 각종 아동 발달 결과에 미치는 학대의 영향을 포괄적으로만 살펴보았다는 점이다(신효정 & 이문희, 2014). 학대는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적응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및 영향력이 서로

다르므로(홍미 & 김효진, 2007; Starr & Wolfe, 1991), 앞으로는 각 유형의 학대가 여러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 학문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학대 유형 별로 피해 아동에 대해 서로 다른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실에서 아동학대는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학대 유형이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이처럼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및 가정폭력에의 노출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중복학대라고 한다(Higgins & McCabe, 2001). 국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총 11,715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적 학대가 45.6%, 정서학대가 17.5%, 방임이 17.2%, 신체학대가 16.1%, 성적학대가 3.7%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피해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아동이 중복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복학대의 총 열한 가지 조합 중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조합이 7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부모가 아동을 때리면서 동시에 욕설을 행하는 것과 유사한 학대 행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복학대를 당한 아동은 학대경험이 없는 아동뿐 아니라 한 가지 학대를 당한 아동보다도 높은 우울, 공격성을 보이는 등 심각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겪는다(Ney, Fung, & Wickett, 1994; Edwards et al., 2003). 또 학대피해로 인한 외상증후군 역시 중복학대 피해 아동이 한 가지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심각한 증상을 나타낸다(Finkelhor, Ormrod, & Turner, 2007). 이와 같이 중복학대 유형의 발생빈도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부적응 양상을 연구할 때에는 중복학대 피해에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중복학대 내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중복학대인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중복피해와 각각의 단

일한 피해 총 세 가지의 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각기 다른지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방임’을 제외하는 이유는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학대 유형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신체,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구타나 욕설 등 부정적 자극을 제시하는 정적인 유형이라면, 방임은 보호자가 자신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동 발달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부적인 유형이기에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른 학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김재엽 & 최권호, 2012; Reidy,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적인 유형의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서로 다른 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그 중복학대는 각각보다 공격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방임을 제외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복지패널 내 방임에 관한 설문문항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점²⁾ 또한 방임을 제외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성적 학대 피해를 묻기 쉽지 않으며,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수치심 등으로 인한 은폐 문제가 다른 학대 유형보다 심각하므로(이명진, 조주연, & 최문경, 2007),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양적연구방법으로는 그 영향력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찾기 매우 어렵다. 실제로 2015 전국 아

2)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수업이 끝난 후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우리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한다’, ‘㉢ 부모님은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채 한다’, ‘㉣부모님은 내가 불량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한다’ 등 총 네 가지이며, Cronbach’s α 는 0.299 으로 매우 낮다. 이와 같이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이유는 네 문항 모두 아동의 비행행동을 전제로 한 후 부모의 반응에 관하여 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항은 모든 방임 피해 유형을 포괄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응답자가 아동 본인인 경우 응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네 응답 모두 ‘전혀 없었다’라는 1점 응답이 가장 많다. 첫 번째 질문은 1번 변수의 값이 해당 문항 응답자(444명)의 92.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2~4번째 문항의 경우 ‘(해당 방임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아동의 응답이 더욱 더 높은 98.9%, 99.3%, 9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왜도와 첨도 등의 분포 특성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정규분포와 거리가 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방임 문제는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성적 학대는 전체 유형 중 약 3.6% 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2016), 한국복지패널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성적 학대 피해를 묻지 않는 것을 설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적학대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질적 연구 등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후속 연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제2절 또래애착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은 가족 이외의 집단과의 교류가 급격히 늘어나므로, 이들을 연구할 때에는 특히 또래집단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또래는 나이나 발달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하며, 또래애착은 그러한 또래 간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affectional bonding) 및 그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긍정적 관계를 뜻한다(Freeman, Hackely, & Corning, 2004). 일반적으로 영유아기 및 초기 아동기에는 1차집단인 가족 내에서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나, 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상호성(mutuality)을 특징으로 하는 또래사이의 애착이 점점 중요해진다(김주연, 도현심, 김민정, & 신나나, 2012).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 또래애착에 주목해왔다. 청소년의 공격성 및 비행행동에 미치는 또래애착의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이 있다. 사회유대이론은 ‘왜 대다수의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를 규명하고자 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기존 비행이론들과 구분된다. 허쉬는 각종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범죄를 덜 저지른다고 하였다(Hirschi, 196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달단계상 아동·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해지고(심미영 & 정규석, 2007; 유순화, 2003),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들에 대한 허쉬의 이론은 설명력이 상당히 높다(서미정, 2012). 청소년이 변화하는 자신과 주변 간 조화의 어려움, 그 예로 ‘애착형성 실패’를 경험한다면 범죄 등 여러 문제 행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허쉬가 사회유대의 네 요소로 제시한 애착, 관여, 참여, 신념 중에서도 아동기의 상호작용 특성상 다른 요소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 애착(attachment)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허쉬가 제시한 개념을 볼 때 관여, 참여, 신념 요소는 아동기보다는 이후 청소년기를 거치며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애착은 타인에 대한 애정, 존경, 동일화 정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인 학대피해 아동이 '또래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애착이 피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허쉬는 친구가 비행친구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강할 때 청소년의 일탈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며, 이는 이미 형성된 애착 관계를 일탈 등의 행동을 통해 잃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Hirschi, 1969). 이는 공격성에 대한 비행친구의 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한 차별접촉 및 사회학습이론과는 대비되는 이론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비행친구와 교제하는 일보다는 가까운 또래와 일반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또래애착이 아동의 공격성을 낮추는 긍정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허쉬가 주장한 부적 관계가 한국사회에 실재하는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문헌을 살펴보면 또래 친구와의 애착이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또래애착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이 더욱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등 사회 부적응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김선주 & 김영희, 2012; 이은해, 김정윤, & 오원정, 2001; 한미현 & 유안진, 1996). 이는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또래애착 형성이 실패할 때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공격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Dodge, Bates, & Petit, 1990). 그러나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을 보면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비행이 증가한다(송지영 & 박성연, 2010; 이재경, 2012; 이주리, 2008; Kupersmidt, Burchinal, & Patterson, 1995). 초등학교 집단을 연구한 송지영과 박성연(2010)은 초등학교는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이전 영유아기에 비해 또래동조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면서도 아직 아동에게 올바른 행동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늘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주리(2008)는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관계가 깊을수록 주위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친구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이론에 근거한 또래 간 애착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때는 가까운 친구의 잘못된 행동 즉 '친구의 비행수준'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적합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기존에 유사한 주제로 수행된 연구들에서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3절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같은 위험에 처하더라도, 피해 아동 모두가 부적응 발달 결과 또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이봉주, 손선옥, & 김윤지, 2015; 한상철 & 김관희, 2012). 이와 같이 동일한 위험에 놓인 아동들 중에서도 성공적인 발달을 나타내는 아동들을 ‘적응유연성(resilience)’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적응유연성이란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및 회복 능력을 의미하는데 유의할 점은 아동이 외부 위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체계 내외적 자원을 바탕으로 그러한 위험 상황을 극복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겪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Reed-Victor & Stronge, 2002). 즉 집단의 일부는 특정요인의 영향으로 동일한 위험에도 더욱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적응유연성의 골자이며, 이는 개인의 결점보다 강점에 주목하는 강점관점과 맥을 함께 한다. 위기라는 용어가 위험과 기회의 공존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학문적으로 ‘적응유연성’은 이러한 위기의 존재 하에서도 개인의 성장 동력을 찾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 여러 개입 근거 마련의 기반이 되는 개념이다. 한편 이와 대치되는 개념은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개인이 외부적 위험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 발달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속성을 칭한다.

여러 이론적 모델 중에서 개인의 적응유연성 및 취약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모델은 상호작용모델이며, 이 모델은 위험요인(risk factor)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라는 개념어로 발달과정을 설명한다(Pianta & Walsh, 1998). 부정적인 발달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위험요인이고, 그러한 위험요인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는 것이 체계 내외에 존재하는 자원인 보호요인이

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효과성 다툼 문제는 각 선행연구에서 연구문제에 따라 다르게 입증되어왔으나(이지연, 2006), 현재의 지배적 시각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동시에 강조하여 그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Olson & Goddard, 2003). 왜냐하면 위험요인은 일차적으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그 과정에서 보이는 개인의 차이까지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박현선, 1998). 따라서 이를 위해 존재하는 위험에 저항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 즉 적응유연성을 신장시키는 ‘보호요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보호요인이 단순히 위험요인과 반대되는 주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그 영향을 완충 및 조절하는 독자적인 요인을 뜻한다는 점이다(Dumont & Provost, 199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요인의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보호요인의 조절 효과가 거의 없는 한편, 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때 비로소 보호요인이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안동현 외, 2000). 보호요인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위험요인의 부적 영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요인까지 발달시켜 적응유연성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Brooks, 2006). 즉 보호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적으로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지연, 2006).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상호작용 모델은 부모의 학대 속에서 일부 아동은 또래애착이라는 보호요인을 통해 성공적인 발달을 이룰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

한편 개인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초기에 주로 개인 특성에 주목하다 이후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포섭하여 다양한 요인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환경체계와 개인체계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때 개인은 가족, 학교, 지역 등 다양한 체계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동적으로 균형, 즉 항상성

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과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다(Bertalanffy, 1968). 이와 같은 생태체계론적 맥락에서 개인은 각종 체계와 관련된 많은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얻게 되는데, 그 결과로 개인의 적응유연성 역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Greene et al., 2002). 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는 환경체계 중 가족체계의 항상성이 무너진 역기능적 체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개인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생태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체계에 존재하는 요인들을 고려한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강상경, 2011), 이 같은 개입을 통해 체계는 다시 적응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 체계의 문제인 아동학대가 개인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또래애착이라는 또 다른 개인체계 외적인 요인이 완충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여, 실천적 개입 방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대나 애착외상 등의 문제를 경험한 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부적응 결과를 또래애착 혹은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서 완충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신효정 & 이문희, 2014; Muller, Sicoli, & Lemieux, 2000). 또한 Brewin, Andrews와 Valentine(2000)은 아동학대의 생존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여러 발달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아동기의 학대 피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적응유연성이 향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대조적으로, 일부 선행연구는 이러한 보호요인의 효과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박주희 & 임양미, 2014; 이재경, 2012; 이주리, 2008; Kupersmidt, Burchinal, & Patterson, 1995). 이태준과 권정혜(2004)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피학대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서 갖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와 함께 개인에게 심리 내적 변화가 동반될 때만 그러한 보호요인의 효과가 작동할 수 있다고

하며 심리적 개입을 강조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아동기에 관심을 가진 신호정과 이문희(2014)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관찰하여 가정에서의 애착외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또래애착이 조절한다고 하였으며 향후 아동 집단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애착외상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서 포괄적 학대를 다루고 있어 학대 피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본 연구와는 연구 목적이 다르다.

한편 신호정과 이문희(2014) 외에도 여러 기존 연구자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학대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즉 학대의 종류마다 부적응 발달결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크기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나아가 학대의 각 유형에 따른 보호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대 피해 유형을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또래애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알아본다. 종합하면, 학대 피해 아동의 공격성 감소를 위하여 학대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제언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제4절 그 외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청소년기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과 학교성적, 아동이 속한 가구형태 및 저소득층 해당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이 응답한 친구의 비행 정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할 것이다. 먼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이 공격성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진혜민 & 배성우, 2012; 최재용, 한보영, & 이윤호, 2014). 한편 학교 성적 또한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인데, 이아영과 유서구(2011)는 주로 학교 성적이 높은 아동이 낮은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학교 성적은 사회유대이론의 요소 중 관여(commitment)와도 관련되는 변수로서, 허쉬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투자분 상실을 기피하므로 개인이 사회 관여가 높아질수록 이탈 가능성이 낮아진다(Hirschi, 196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통상적으로 관여는 학교에서의 성적 또는 미래 직업에 대한 열망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황성현 & 이강훈, 2013; 김상원, 2007).

다음으로 아동이 속한 가족체계와 관련되는 요인을 살펴본다. 가족체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는 가구소득이 있는데, 가구소득 수준과 아동·청소년의 공격성(또는 공격성 비행)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인다. 가구의 소득수준과 청소년 비행 사이에 뚜렷한 연관이 없다는 연구(유안진, 이점숙, & 서주현, 2005; 최규련, 2010)도 있으나, 그 외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낮은 경제적 수준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및 비행행동을 높인다는 결과가 지배적이다(황성현 & 이강훈, 2013; 고정자, 2003). 유사한 맥락에서 구인회 등(2009)의 연구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저소득층 해당 여부를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아동이 속한 가족체계와 관련된 기타 요인 중에서 ‘가구형태’ 또한 대표적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그 외의 가정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폭력행동 등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유안진, 이점숙, & 서주현, 2005; Gagnon et al., 1995; Demuth & Brown, 2004),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의 결혼상태(이혼, 별거 등) 또한 청소년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규련, 2010). Tremblay 등(1996)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한부모 가정 출신인 경우가 75%인 것에 반하여, 가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46%가,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17%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국내에서 피학대경험이 아동의 비행과 또래관계 소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오연희(2012) 등 여러 선행연구자들도 가족 구성 형태를 주요한 통제변수로 보았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 모형에서도 아동이 속한 가족의 유형을 통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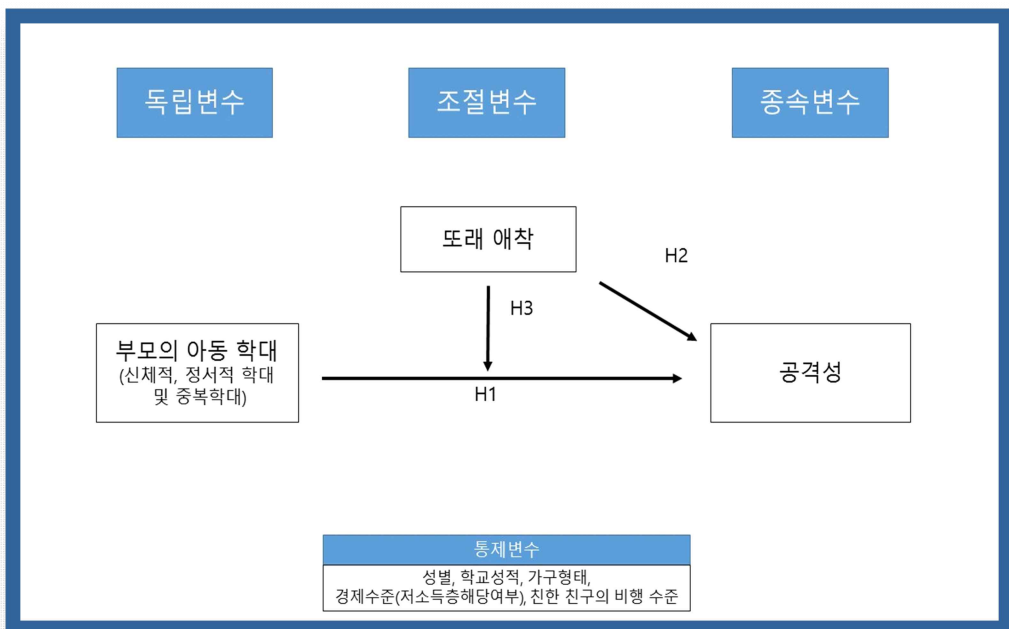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이외에, 비행을 설명하는 경쟁적 이론에서 강조되어온 변인을 함께 통제하고자 한다. 성장기 비행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 중 차별접촉이론 및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므로(Sutherland, Cressery, & Luckenbill, 1995; Akers, 1985), 이와 연관된 변수를 통제하면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행친구의 존재 또는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는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높인다(유순화, 2003; 황성현 & 이강훈 2013). 박현수와 정혜원(2010) 또한 비슷한 논지에서 비행친구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청소년 개인의 비행이 빠르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관련되는 변수로서 아동이 응답한 친한 친구의 비행 정도를 통제한 후, 주변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형성되는 또래애착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학대 유형별로 조사하고,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이론 및 선행연구를 근거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뒤, 주요 변수들을 포함한 전체 연구모형을 아래 [그림 3-1]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2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 문제별로 검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인가?

가설 1-1.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일 것이다.

가설 1-2.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일 것이다.

가설 1-3. 부모로부터 받은 중복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일 것이다.

[연구문제 2] 또래애착과 아동의 공격성은 부적의 관계인가?

가설 2-1. 또래애착과 아동의 공격성은 부적의 관계일 것이다.

[연구문제 3]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 수준이 달라지는가?

가설 3-1.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학대 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의 정적인 관계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2.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 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의 정적인 관계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3.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받은 중복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의 정적인 관계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이 또래애착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한국 아동이며,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10차(2015년) 부가조사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설계단계에서 전국 지역별 가구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하는 한편, 표본 추출 시에 60%미만 저소득층을 과중 표집하여 현재 국내 패널 조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최초 원표본은 7,072가구이고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및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2015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원 표본 가구 기준으로 조사 완료율이 97.2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기본 조사 이외에 3년 주기로 아동 대상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1차는 1차 설문 당시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재학 중인 아동, 4차는 중학교 1학년~3학년 재학 중인 아동, 7차는 고등학교 1학년~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성인기로 이전함에 따라 10차 조사에서는 신규 아동 표본을 추출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10차 자료가 최근 사회적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차 조사 신규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이들은 조사 대상 가구원 중 2015년 3월 기준 초등학교 4학년~6학년(11~13세)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전체 응답자 총 471명 중, 본 연구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아동을 제외하기 위하여 가구형태 중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 단독가구에 해당하거나 관련 항목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총 406명이다.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의 공격성이며, 공격성은 개념적으로 ‘타인 및 자신이 속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 양식 및 속성’을 의미한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표준화된 측정도구인 K-CBCL에서 제시한 문항을 활용하여 아동의 공격성 및 각종 행동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 K-CBCL은 Achenbach(1991)가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한국에서 오경자 등(1998)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이다. 최종 118개 문항으로 구성된 K-CBCL은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양분되어 있으며,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 8개의 소척도(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부주의-과잉행동, 비행, 공격성)가 있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총19개 문항에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격성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당시 1~3점으로 매긴 공격성 관련 값들을 0~2점으로 변환하고, 응답자마다 공격성 평균을 나타내는 변수를 새로 생성하여 최종적으로 이 단일변수를 공격성을 대표하는 종속변수로 분석에 사용한다. 이 변수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2이며, 그 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를 보면, 공격성 문항은 조사 시점 기준 과거 6개월 동안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묻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말다툼을 자주 한다’, ‘㉡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 내 물건을 부순다’, ‘㉥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 샘을 잘 낸다’, ‘㉩ 자주 싸운다’, ‘㉪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 고함을 지른다’, ‘㉬ 으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것을 한다’, ‘㉞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㉟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㊱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㊲ 남을 잘 놀린다’, ‘㊳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㊴ 남을 위협한다’. 상기한 열아홉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29$ 이므로, 측정도구들이 구성개념인 ‘공격성’을 잘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의 아동학대이며 이를 신체적 학대 피해 여부, 정서적 학대 피해 여부 및 중복학대 피해 여부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 연구를 수행에 앞서 각 유형의 개념을 정리하면, 먼저 신체적 학대는 부모 등이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아동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힌 것이고,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법(감금 등)으로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동에게 위협을 가하여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특성상 아동의 응답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를 간접 측정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서울아동패널(2005)을 참조하여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를 1문항으로, 정서적 학대를 3문항으로 묻고 아동이 이 질문에 조사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발생 빈도를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에 1~2번 정도’ 라는 5점 척도로 스스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의 경우 단일 문항이므로 전혀 없었음(0), 1회 이상(1)으로 재코딩하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 먼저 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뒤 마찬가지로 전혀 없었음(0), 1회 이상(1)으로 재코딩한다. 그 뒤 신체적 학대가 1이고 정서적 학대가 0인 집단을 ‘신체적 학대 단일피해 집단’으로, 반대의 경우를 ‘정서적 학대 단일피해 집단’으로, 두 학대피해 모두 있는 경우는 ‘중복

학대 피해 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생성한다. 세 더미변수에서 모두 0값을 갖는 경우는 학대 피해가 없는 아동을 의미하며, 향후 통계적 분석을 통해 나머지 세 집단과 비교가 가능한 기준 집단이다.

학대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문항은 '㉠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라는 단일 문항이며,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세 문항은 '㉡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등이다. 정서적 학대 문항들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0.682였다.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또래애착이다. 또래애착이란 또래 간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affectional bonding) 및 그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긍정적 관계를 뜻한다(Freeman, Hackely & Corning, 2004). 한국복지패널은 기존 서울아동패널(2005)을 참조하여 또래애착 관련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친한 친구들(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서 학교 친구, 동네 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한다고 명시함)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주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그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응답 아동 본인의 감정을 5점 적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단계에서 활용할 또래애착 변수는 이 네 문항에 대한 응답값 1~5를 0~4로 코딩한 후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상호작용항 투입에 의한 다중공선성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연속변수인 또래애착은 평균중심화한 뒤 분석에 활용한다(Aiken, West, & Reno, 1991).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표에서 활용된 문항을 살펴본다. ‘㉠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라는 네 문항을 통해 또래애착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치화된 응답을 얻는다. 이 네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0.725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한편 선행 질문에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미 네 문항 모두에 걸쳐 처리된 응답자들의 경우, 또래애착 값을 0으로 한다.

4.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과 학교성적, 아동이 속한 가구형태 및 저소득층 해당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이 응답한 친구의 비행 정도가 통제 변수가 된다.

변수별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원자료에서 남성(1) 여성(2)으로 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 여성을 0으로 재코딩한다. 학교 성적의 경우 지난 1년 동안에 전 과목 평균 성적을 묻는 문항이 있고, 이에 대하여 아주 못함, 중간이하, 중간, 중간이상, 아주 잘함 등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고 있어 1점에서 5점까지의 값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가족체계 관련된 요인으로 가구 형태를 통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응답한 값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가 아니라 가구용 데이터에 존재하므로, 본 연구와 관련된 아동 부가조사 데이터에 해당 변수를 추가하였다. 가구용 데이터에서는 가구형태에 관한 응답이 ①단독(1인 가구), ②모자, ③부자, ④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⑤기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독가구, 조손가구 및 소년소녀가장 등 본 연구에서 알아보는 친부모 학대 피해와 맞지 않는 유형은 결측값 처리한 뒤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한부모 가정을 1으로 하고 그 외의 가구형태는 일반적인 양부모 가정으로 보아 0으로 하였다. 가족과 관련된 또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경제수준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해당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가중치와 함께 기본정보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즉 가구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이면 저소득층 가구(2), 그렇지 않으면 일반가구(1)로 표기한 가구구분 변수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저소득층해당가구(1), 비해당가구(0)로 하여 분석에 투입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이외에, 비행을 설명하는 경쟁적 이론에서 강조되어온 변인 또한 통제하기로 하였다. 범죄를 설명하는 차별접촉이론 및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성장기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강조하므로(Sutherland, 2015; Akers, 1985), 이를 통제하면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아동부가조사에서는 응답아동으로 하여금 친한 친구들의 비행경험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역시 한국복지패널이 서울아동패널(2005)을 참고한 것이며, 총 6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어 1~4값을 가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0~3으로 코딩 변경한다. 그러나 첫 번째 문항인 ‘㉠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만은 예외적으로 역코딩을 한다. 그 값을 나머지 문항인 ‘㉡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 내 친구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뺏뜬) 적이 있다’에 대한 변수값과 총합하여 평균을 낸 변수를 생성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변수값은 다시 0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지며, 수치가 높을수록 친한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제3절 연구모형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IBM SPSS Statistics v.22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평균, 편차, 왜도, 첨도를 알아보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각 변수들이 왜도 3미만, 첨도 10미만인 경우 정규성이 담보된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10).

둘째, 주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다.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는 분산팽창인자(VIF) 및 Tolerance를 통해서 확인한다. VIF 2.5미만 또는 Tolerance 0.4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김태근, 2006).

셋째, 변수 분포 및 다중공선성 확인 후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체적 학대경험, 정서적 학대경험, 및 중복학대 피해가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지 OLS(Ordinary Least Squares) 추정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한다.

넷째,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보호요인인 또래애착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앞단계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세 가지 독립변수들과 조절변수인 또래애착 간의 상호작용항들을 모형에 추가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은 전 단계에서 제시된 모형과 비교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추가되는 상호작용 변수들로 인한 설명력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구성하는 연속변수(또래애착)는 평균중심화를 한 뒤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회귀분석에 포함한다(Aiken, West, & Reno, 1991).

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가구형태, 월평균가구소득 및 저소득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5-1>과 같다. 백분율의 경우, 전체 표본수 (n=406)로 나눠 도출된 값을 제시하였다.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06)

변 수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성 별		여	215	53.0
		남	191	47.0
학 년		초4	112	27.6
		초5	138	34.0
		초6	156	38.4
가구 형태		한부모 가정	15	3.7
		그 외	391	96.3
경제 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4	8.4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5	40.6
		400만원 이상	207	51.0
	저소득층 해당 여부	비해당 가구	355	87.4
		저소득층가구	51	12.6

전체 응답자인 초등학교 아동 중 406명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215명(53.0%), 남학생은 191명(47.0%)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나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이들의 학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112명(27.6%),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138명(34.0%), 6학년 학생이 156명(38.4%)으로 6학년 학생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이 속한 가족 속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아동 등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사대상자의 가구 형태는 한부모 가정에 15명(3.7%), 양부모 가정으로 대표되는 그 외의 가정에 391명(96.3%)이 응답하여 조사대상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비율이 9.5%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아동 중 한부모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구형태에 대한 자료는 같은 해에 조사대상자 아동이 속한 가구를 추적하여 가구용 설문조사 응답을 사용한 것이다. 즉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조사에 비하여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406명의 아동이 속한 가구를 역추적하지 않고 원 데이터인 10차년도 한국복지패널데이터 가구 전체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전체 표본 총 6914명 중 모자 및 부자에 해당하는 가구형태는 각각 95명, 34명으로 총 약 2%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보이는 까닭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모자 또는 부자의 정의를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미성년 자녀(만18세 미만, 취학중인 경우 만18세 포함)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것을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인 한국복지패널에서는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외조부모와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모자 가구에 응답하지 않고, '그 외'라는 항목에 응답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아동이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응답할

경우 이 아동은 한부모가족 아동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실제 여성가족부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모자가구를 다시 순수 모자가구와 모자기타가구로 나눌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구가 47.3%, 부자가구가 19.8%, 모자+기타가구가 17.8%, 부자+기타가구가 15.1%이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이 살펴본 것과 동일한 순수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아동 비율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더라도 9.6%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가처분 소득 기준)을 보면 200만원 미만은 34명(8.4%),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에 165명(40.6%), 400만원 이상에 207명(51.0%)의 아동이 속한다. 또 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또 다른 지표인 저소득층 해당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은 51명으로 전체의 12.6%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는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약 225만원 미만 가구이므로, 위 <표 5-1>에서 월평균 가구소득과 저소득층해당여부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저소득층 가구가 본 연구에서 적정비율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학대 피해 현황

본격적인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 분석 대상인 초등학교생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 빈도를 각 종류별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한국복지패널은 신체적 학대를 단일 문항으로, 정서적 학대는 총 세 문항으로 묻고 있다. 응답은 모두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아동의 응답을 바탕으로 아동의 친부모 학대 피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2>와 같이 나타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별로 평균값을 구해 분석하였다.

〈표 5-2〉 조사대상자의 학대피해 빈도

학대 유형	최솟값	최댓값	평 균	표준편차
신체적 학대	1	5.00	1.2545	0.63998
정서적 학대	1	4.67	1.2019	0.46287

학대 유형별로 아동이 응답한 과거 1년간 피해 빈도를 분석하면 상기한 바와 같이 신체적 학대가 정서적 학대보다 근소한 차이로 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중복학대 피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변수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신체적 학대 단일 문항에 피해가 없고 정서적 학대 피해를 묻는 세 문항에도 역시 없다고 응답한 학대 피해 없는 아동, 신체적 학대 피해만 있다고 응답한 아동, 정서적 학대 피해만 있다고 응답한 아동, 그리고 두 가지 학대 피해를 경험한 중복학대 피해 아동 등 총 네 집단을 구분하여 전체 응답 아동 중에서 각각의 빈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조사대상자의 학대피해 현황 (중복학대 포함)

(n=406)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중복학대 피해 아동	58	14.28
신체적 학대 피해만 있는 아동	25	6.15
정서적 학대 피해만 있는 아동	59	14.54
학대 피해 없는 아동	264	65.02

앞서 <표 5-2>에서는 신체적 학대 피해의 평균값이 정서적 학대 유형보다 크므로 전체 아동들이 보고한 신체적 학대 빈도가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면, 중복학대를 고려한 <표 5-3>을 보면 신체적 학대만 경험한 피해 아동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학대 또는 중복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더 많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어느 학대 피해도 입지 않은 아동은 전체 406명 중 264명으로 약 65.02%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아동 3명 중 1명꼴로 자신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혹은 신체적 학대 중 최소 한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은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체, 정서학대, 방임 및 중복학대를 포괄적으로 살핀 김세원(2016)의 연구도 전체 아동 가운데 65.2%이 학대경험이 없는 것으로, 신체와 정서학대 단일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각각 전체 아동의 5.7%, 12.6%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아동은 전체의 총 14.2%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피해 분포를 보인다.

한편 학대 피해가 없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약 65%라는 것은 역으로 아동학대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5년 발표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 평균 1.32%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NGO 굿네이버스가 2016년 약 9천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국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이 이러한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의 17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이 한 달에 1회 이상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이 27.4%(2,246명)에 달했다. 아동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해당 자료는 피해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특성이 강하며, 사회복지 실천학에서 최근 당사자 관점이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같이 설계된 자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복지패널 역시 피해아동이 직접 응답한 설문을 기반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학대피해 조사결과보다 학대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4>와 같다. 주요 변수들 중 연속변수들을 중심으로 그 집중경향도와 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함께 확인하였다.

<표 5-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종속 변수	공격성	0.131	0.184	.000	1.000	2.159	5.340
	신체적 학대	0.061	0.244	.000	1.000	-	-
독립 변수	정서적 학대	0.145	0.352	.000	1.000	-	-
	중복 학대	0.142	0.350	.000	1.000	-	-
조절 변수	또래 애착	3.267	0.614	.500	4.000	-.742	0.575
통제 변수	학교 성적	3.760	0.880	1.000	5.000	-.475	.214
	친한 친구의 비행	0.172	0.203	.000	1.500	2.719	9.446

주요 변수 분포를 보면 공격성은 평균이 0.131, 표준편차 0.184이며 또래애착은 평균 3.267, 표준편차 0.614, 통제변수인 학교성적 평균은 3.760 표준편차 0.880, 친한 친구의 비행 정도는 평균이 0.172 및 표준편차 0.203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독립변수는 신체적 학대만 있는 집단, 정서적 학대만 있는 집단, 중복학대가 있는 집단을 나타내기 위해 질적변수를 0과 1값으로 수치화한 더미변수이다. 각각의 평균값은 아동이 각 집단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1값을 모두 더하고 전체 사례수로 나누어 구하므로, <표 5-3>에서 백분율 값이 의미하는 바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신체 학대 피해 아동은 25명으로 전체의 6.15%이며,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은 59명으로 14.54%, 마지막 중복학대 피해 아동은 58명으로 14.28%였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의 가정 중에서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통계학적으로 오차의 정규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실제 자료를 통해 오차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차의 정규성을 일차적으로 확보하고 이와 함께 크기가 충분히 큰 표본을 활용함으로써 중심극한정리에 의한 정규성을 확보한다. 왜도와 첨도는 일반적으로 그 절댓값이 각각 3과 10미만일 때 정규성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Kline, 2010). 위의 자료를 통해 최종분석에 포함되는 주요 변수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은 406명으로 정규성을 확보하기에 무리 없이 충분한 표본 크기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검증에 앞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피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5-5>에 정리하였다.

먼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r = -.106, p < .05$), 신체적 학대와 중복 학대($r = -.105, p < .05$), 정서적 학대와 중복 학대($r = -.168, 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신체적 학대만 받은 집단에 속할수록 정서적 학대만 받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고, 중복 학대 집단에서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한편 정서적 학대만 받은 집단에 속할수록 역시 중복학대 피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Pearson's r 의 절댓값이 0.8이상이 아니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는 않는다(Garson, 2012). 한편 본 연구에서 보호요인으로 설정한 또래애착의 경우, 위 세 독립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중속변수인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변수들은 중복학대, 학교성적,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복학대와 공격성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어서($r = .197, p < .01$), 중복학대 피해 아동일 경우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역시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어서($r = .285, p < .01$),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가 심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성적과 공격성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어서($r = -.161, p < .01$),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간 전반적인 상관관계 크기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1 이상이면 작은 상관관계, 0.3 이상이면 보통의 상관관계, 0.5 이상이면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본다(Cohen, 1988).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보통 이하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5-5〉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공격성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중복학대	또래애착	성별	학교성적	가구형태	저소득층	친한친구의 비행정도
공격성	1	.092	.075	.197**	-.037	.065	-.161**	-.024	.061	.285**
신체적학대		1	-.106*	-.105*	.068	-.036	-.105*	-.050	-.004	-.007
정서적학대			1	-.168**	.008	.017	-.039	-.081	.034	.160**
중복학대				1	-.038	.123**	-.049	.069	.036	.017
또래애착					1	-.128**	.170**	-.054	-.138**	-.187**
성별						1	-.013	.025*	-.059	.074
학교성적							1	-.051	-.100*	-.043
가구형태								1	.280**	.037
저소득층									1	.093*
친한친구의 비행정도										1

* $p < .05$, ** $p < .01$.

제3절 가설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러한 관계가 아동이 또래에 가지는 애착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OLS(Ordinary Least Square)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5-6>~<표 5-8>과 같다. 먼저 주효과 모형에서는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학대 피해와 또래 애착변수가 공격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 다음 단계인 조절효과 모형에서는 위 모형에 더하여 학대 피해와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조절효과가 구체적인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도식화한 결과를 [그림 5-1]~[그림 5-2]에서 제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통계적인 기본 가정들을 검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각 변수들은 왜도가 3미만, 첨도가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0). 또 산점도와 히스토그램을 활용하여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Durbin-Watson 통계치 역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값이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들을 충족한다.

각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이 정적인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 가설 및 그 검증을 위한 위험요인의 주효과 모형(Model 1) 수식은 다음과 같다. 이 때 독립변수, 종속변수와 함께 통제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인가?

가설 1-1.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일 것이다.

가설 1-2.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일 것이다.

가설 1-3. 부모로부터 받은 중복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일 것이다.

< Model 1 : 위험요인의 주효과 모형 >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X_2 + \beta_3 D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D_6 + \beta_7 D_7 + \beta_8 D_8 + \epsilon$$

Y : 공격성

D_1 : 성별 (남=1, 여=0)

X_2 : 학교성적

D_3 : 아동이 속한 가구 형태 (한부모가정=1, 기타=0)

X_4 : 저소득층 해당여부 (저소득층=1, 비해당=0)

X_5 :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D_6 : 신체적 학대 단일 피해 (비해당=0, 해당=1)

D_7 : 정서적 학대 단일 피해 (비해당=0, 해당=1)

D_8 : 중복학대 피해 (비해당=0, 해당=1)

〈표 5-6〉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변 수		Model 1		
		B	S.E.	β
통제 변수	성별	.009	.017	.024
	학교성적	-.026	.010	-.124**
	가구 형태	-.052	.047	-.053
	저소득층 여부	.017	.027	.031
	친한 친구의 비행	.238	.043	.263***
독립 변수	신체적 학대	.083	.036	.109*
	정서적 학대	.036	.025	.069
	중복학대	.110	.025	.209***
상수		.210		
R^2		.156		
Adj. R^2		.139		
F		9.176***		

* $p < .05$, ** $p < .01$, *** $p < .001$

위 주효과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F 값은 9.176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0.139인데, 그 의미는 모형1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인 아동의 공격성 변량의 13.9%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부모로부터 당한 신체적 학대(중복학대를 제외한 단일 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beta = .109$)으로 유의도(p)가 .022로 .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만 당할 경우에도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 아동이 부모로부터 당한 정서적 학대(중복학대 제외한 단일 피해)는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beta = .069$ 로 나타나 역시 정적인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유의도(p)가 .15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중복학대 피해의 경우 그 β 값이 .209으로 나타나고 유의도(p)는 .000으로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중복학대 피해가 아동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신체적 학대 단일 피해보다는 중복학대 피해가 공격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여 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신체적 학대와 중복학대가 각각 공격성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가설 1-1]과 [가설 1-3]이 지지되었다. 쉽게 말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학대피해가 없는 아동보다 신체적 학대 피해 또는 중복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공격성이 높은 것이다.

2. 또래애착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문제인 또래애착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가설과 모형(Model 2)은 다음과 같다. 이는 앞서 제시한 모형(Model 1)에 또래애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그 주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5-7>과 같다.

[연구문제 2] 또래애착과 아동의 공격성은 부적인 관계인가?

가설 2-1. 또래애착과 아동의 공격성은 부적인 관계일 것이다.

< Model 2 : 보호요인의 주효과 모형 >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X_2 + \beta_3 D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D_6 + \beta_7 D_7 + \beta_8 D_8 + \beta_9 X_9 + \epsilon$$

Y : 공격성

D_1 : 성별 (남=1, 여=0)

X_2 : 학교성적

D_3 : 아동이 속한 가구 형태 (한부모가정=1, 기타=0)

X_4 : 저소득층 해당여부 (저소득층=1, 비해당=0)

X_5 :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D_6 : 신체적 학대 단일 피해 (해당=1, 비해당=0)

D_7 : 정서적 학대 단일 피해 (해당=1, 비해당=0)

D_8 : 중복학대 피해 (해당=1, 비해당=0)

X_9 : 또래애착

〈표 5-7〉 또래애착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변 수		Model 2		
		B	S.E.	β
통제 변수	성별	.011	.017	.029
	학교성적	-.027	.010	-.131**
	가구 형태	-.052	.047	-.053
	저소득층 여부	.020	.027	.036
	친한 친구의 비행	.244	.043	.270***
독립 변수	신체적 학대	.081	.036	.105*
	정서적 학대	.035	.025	.067
	중복학대	.110	.025	.209***
조절 변수	또래애착	.013	.015	.042
상수		.212		
R^2		.158		
Adj. R^2		.139		
F		8.235***		

* $p < .05$, ** $p < .01$, *** $p < .001$

위에서 보호요인의 주효과 모형(Model 2)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F값은 8.235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0.139인데, 그 의미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아동의 공격성 변량의 13.9%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공격성에 대한 또래애착의 영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들과 독립변수인 학대피해를 통제한 상태에서 또래애착($\beta = .042$)은 유의도(p)가 .386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과 공격성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상태에서 아동의 또래애착의 변화는 공격성 변화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3. 부모의 학대에 대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과 부모의 학대 피해가 갖는 정적인 관계를 또래애착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모형(Model 3)을 검증하였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Model 2에 각 학대 피해 유형과 또래애착 사이에 생성되는 총 세 가지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이며,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5-8>에 정리한 바와 같다.

[연구문제 3]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 수준이 달라지는가?

가설 3-1.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의 정적인 관계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2.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의 정적인 관계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3.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받은 중복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의 정적인 관계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 Model 3 : 상호작용 모형 〉

$$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X_2 + \beta_3 D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D_6 + \beta_7 D_7 + \beta_8 D_8 + \beta_9 X_9 \\ + \beta_{10} D_6 X_9 + \beta_{11} D_7 X_9 + \beta_{12} D_8 X_9 + \epsilon$$

Y : 공격성

D_1 : 성별 (남=1, 여=0)

X_2 : 학교성적

D_3 : 아동이 속한 가구 형태 (한부모가정=1, 기타=0)

X_4 : 저소득층 해당여부 (저소득층=1, 비해당=0)

X_5 :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D_6 : 신체적 학대 단일 피해 (해당=1, 비해당=0)

D_7 : 정서적 학대 단일 피해 (해당=1, 비해당=0)

D_8 : 중복학대 피해 (해당=1, 비해당=0)

X_9 : 또래애착

$D_6 X_9$: 신체적 학대 단일 피해와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

$D_7 X_9$: 정서적 학대 단일 피해와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

$D_8 X_9$: 중복학대 피해와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

〈표 5-8〉 부모의 학대에 대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변 수		Model 3		
		B	S.E.	β
통제 변수	성별	.009	.017	.023
	학교성적	-.029	.010	-.141 ^{**}
	가구 형태	-.049	.047	-.051
	저소득층 여부	.015	.027	.027
	친한 친구의 비행	.230	.043	.254 ^{***}
독립 변수	신체적 학대(A)	.112	.037	.146 ^{**}
	정서적 학대(B)	.034	.025	.066
	중복학대(C)	.111	.025	.211 ^{***}
조절 변수	또래애착(D)	.008	.017	.026
상호 작용 항	A×D	-.185	.062	-.146 ^{**}
	B×D	.105	.046	.111 [*]
	C×D	.017	.038	.023
상수		.221		
R^2		.190		
Adj. R^2		.165		
R^2 변화량(model 2⇒3)		.026 ^{***}		
F		7.6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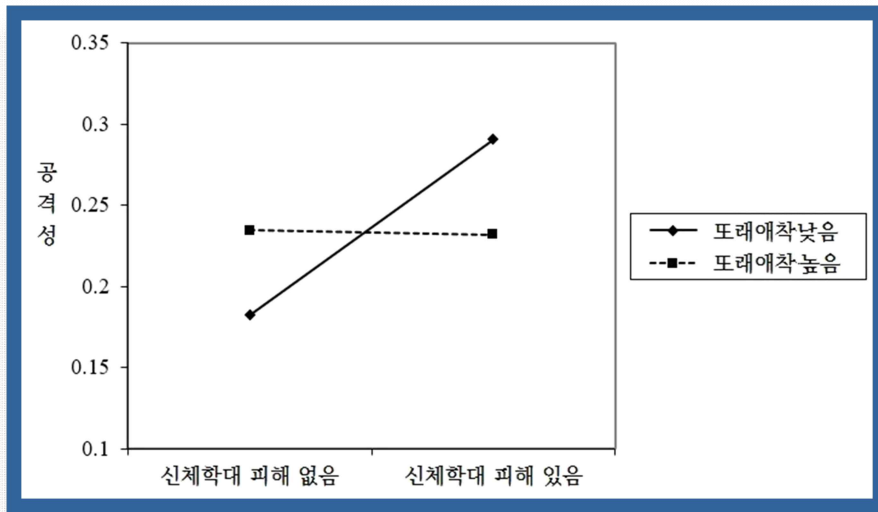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Model 3의 경우 F 값이 7.660으로 .001수준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에 모형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할 때에는,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에서 설명력의 변화가 유의한 동시에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할 때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양오석, 2013). 이에 따라 먼저 Model 3의 설명력의 변화량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026으로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유형별 학대피해와 또래애착과 간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됨에 따라 종속변수인 공격성의 변량이 2.6% 더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우선 중복학대와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이는 중복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단일 유형의 학대 피해의 영향보다 큰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김재엽 & 최권호, 2012). 위 <표 5-8>에서도 독립변수인 중복학대(C)가 독립변수 중에서도 공격성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써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아동이라고 하여 부모로부터 중복학대를 당할 때 공격성이 높아지는 수준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 단일피해와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도(p)가 .003으로 나타나 .01유의수준에서 유의했으며, 그 값은 -.146로 확인된다. 따라서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 피해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정적인 관계수준이 줄어든다는 [가설3-1]을 수용할 수 있다. 즉 신체적 학대피해를 당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공격성이 높는데, 이들 중에서도 또래애착이 강한 아동의 공격성 증가는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피해와 또래애착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 형태를 도식화하였다(Aiken, West, & Reno, 1991). 먼저 조절변수(또래애착)의 평균값에 1 표준편차를 더한 값과, 1 표준편차를 뺀 값을 각각 또래애착이 높은 집단과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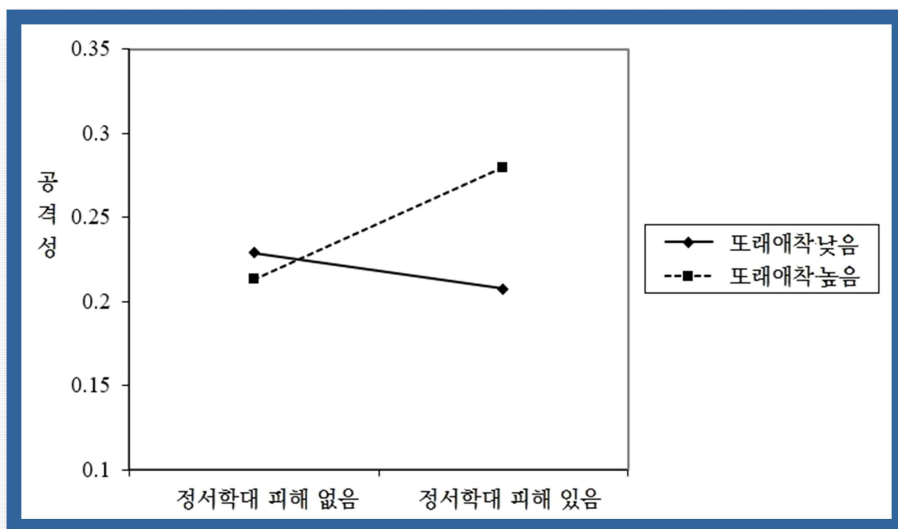
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는 학대 피해 없는 집단(0)과 신체적 학대 피해 집단(1)을 나눈다. 각각의 조합으로 나누어진 네 집단의 종속변수 값을 용이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 5-1]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5-1] 신체학대 피해와 공격성 관계에 대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앞서 [가설 1-1]에서 검증된 것처럼, 신체학대 단일 피해를 당한 아동은 피해가 없는 아동에 비하여 공격성이 높다. 그런데 또래애착이 낮을 때와 높을 때를 나누어 그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또래애착이 낮은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가 증가할 때 아동 공격성이 높아지지만 또래애착이 높은 경우 신체적 학대가 높더라도 아동의 공격성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래 관계가 돈독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가족 외 체계로부터 긍정적 자극을 받아 신체적 학대로 인한 공격성 증가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이다. 간단한 도식화를 통해서 또래애착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강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정서적 학대 피해와 또래애착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앞서 [연구문제1]에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공격성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Model 3 분석결과를 보면 정서적 학대 단일피해와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이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에도 불구하고($p=.023$), β 값이 .111으로 정서적 학대(.066)의 β 값과 같은 부호인 양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3-2]은 기각된다. 두 가설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자 앞서 시행한 방식을 시행하여 집단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조절변수(또래애착)의 평균값에 1 표준편차를 더한 값과 1 표준편차를 뺀 값을 각각 또래애착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에 관하여는 학대 피해 없는 집단(0), 정서적 학대 피해 집단(1)을 나누었다. 이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네 집단의 공격성 값을 비교하였다.



[그림 5-2] 정서학대 피해와 공격성 관계에 대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정서적 학대와 또래애착 간 상호작용모형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또래애착이 낮은 경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공격성이 낮은 매우 특이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다른 학대 유형과는 다른 양상으로서, 아동이 자신을 정서적 학대 피해자라고 인지함으로써 부모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함과 동시에 또래에게 정서적 지지를 얻지 못할 때는 아동이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들과 달리 또래애착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공격성이 높다. 그 공격성의 증가량이 매우 높은데, 앞서 또래애착이 낮은 집단에서 학대로 인한 공격성 감소량에 비하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시 유의할 점은 이 분석 모형에서 비행 친구의 영향력을 통제했다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직적 권위체계에서 아래를 차지하는 가족 체계 밖 체계에서 사회적으로 따뜻한 지지를 받을 때에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억울한 학대 피해에 관한 분노를 바탕으로 다른 체계에서 공격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정리하면 앞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때 정서적 학대가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2]는 기각되었으나, 또래애착이 높은 집단에 한해서는 동일한 가설이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림 5-2]에서는 정서학대 피해 경험에 없는 아동의 경우 또래애착 수준에 따른 공격성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에 비하여 정서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또래애착 수준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편차에 대하여 고려하건대, 발달단계에서 또래보다 앞서 접촉하는 가족에 의하여 정서학대를 당할 때 아동이 취약 상태에 놓여 이후 학령기에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또래 사이에서 발생하는 애착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는 것이다.

제6장 결론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러한 관계가 아동이 또래에 대하여 갖는 애착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국내에서도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대피해가 아동의 부적응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아동학대 피해 자녀들이 공격성을 보이거나 비행 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학대 피해의 성격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거나 중복학대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행이나 공격성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차별접촉 이론 등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주로 청소년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결과를 아동에까지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이는 최근 초등학교 집단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등 아동 후기에도 뚜렷한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아쉬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 집단에서 유형별 학대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수많은 학대 피해 아동이 같은 부적응 발달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대라는 위험요인 속에서도 특정한 보호요인이 존재하여 위험에 저항하는 적응 유연성이 개인마다 다르게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아동기는 학령기에 진입하는 시기이므로 가족 체계 외에 새로이 속하는 체계에서 그 자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 의하면 또래와의 애착 수준이 높으면 그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아동은 일탈행동을 줄인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이

에 대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또래애착이 강할 때 주위 친구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친한 친구의 비행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애착이 유형별 학대 피해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 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한국복지패널의 10차 아동부가조사를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은 조사시점인 2015년에 초등학교 4~6학년에 해당하는 아동 406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OLS추정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문제 및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형별 부모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하는 모형(Model 1)을 만들고 [연구문제 1]을 해결하였다. 그 결과 [가설 1-1], [가설 1-3]이 지지되어 각각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학대 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일 것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중독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일 것이다”라는 결과를 얻었다. 즉 부모의 신체적 학대와 신체, 정서적 학대의 중독학대가 있을 때 피해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단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피해 아동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 영향 수준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로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교성적과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가 공격성에 각각 부적인 영향, 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 다음 연구문제인 또래애착이 아동의 공격성과 부적인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또래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모형(Model 2)을 만들고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또래애착과 아동의 공격성이 부적인 관계에 있다는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즉 부모의 학대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아동이 주변 또래와의 애착이 높다고 하더라도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아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는 기존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의 설명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정적인 관계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연구문제 3]에 대하여, 위험요인인 학대와 보호요인인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그 회귀계수의 통계적 모형을 확인하는 모형(Model 3)을 구성하고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신체학대 피해 경험과 아동의 공격성 사이의 정적인 관계수준이 감소하여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한편 또래애착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보호요인일 것으로 가정했던 [가설 3-2]은 기각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아동의 집단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공격성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또래애착이 높은 집단은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 공격성이 높아지지만 또래애착이 낮은 집단은 정서적 학대를 당할 때 도리어 공격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전에는 이론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집단 특성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중복학대 경험과 아동의 공격성 사이의 정적인 관계수준이 감소할 것이라고 세웠던 [가설 3-3]은 다중회귀 분석결과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지 않게 도출되어 기각되었으며, 이는 중복학대 피해가 있는 아동이 또래애착 수준이 높다고 하여 공격성의 증가정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위 [가설 3-1]에 대한 검증과 [가설 3-2]에 대한 추가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중복학대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 피해가 아동의 발달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중복학대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제2절 논의

1. 부모의 학대 · 또래애착과 아동의 공격성

부모의 유형별 학대와 피해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Model 1과 또래애착과 공격성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 Model 2의 분석결과, 또래애착과 공격성의 정적인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모의 학대 중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학대가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회귀식에서의 계수를 보면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도가 0.15으로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다.

부모의 신체적 학대,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공격성이 높다는 Model 1의 결과는 부모의 학대가 비행·공격성 등 자녀의 부적응 발달을 예측함을 보인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Brown, 1984; Calvete & Orue, 2012). 또한 국내에서도 기존에 가정폭력 직접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이 피해가 없거나 간접 피해를 입은 아동보다 이후 발달과정에서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정기원 & 서현숙, 2007; 신효정 & 이문희, 2014).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이 아닌 아동기에도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기존 연구와 달리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본 결과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사실 또한 검증하였다. 이는 학대 피해 아동에 적절한 개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피해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혹은 중복학대를 피해 아동의 경우 공격성 발달을 막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이와 다른 발달 영역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한편 학대피해와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등 기타 통제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또래애착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Model 2의 회귀분석 결과, 또래애착이 높다고 아동의 공격성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대표성을 갖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이러한 통계적 분석 결과는 전체 평균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위 집단에서 모두 같은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모로부터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과 그런 피해가 없는 아동의 경우 또래애착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때 보호요인이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안동현 외, 2000)에 의하면 학대 피해가 있는 아동일 경우 비로소 또래애착이 높을 때 비로소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또래애착의 주효과 뿐 아니라 위험요인인 학대 피해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위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부모의 학대와 아동 공격성의 정적인 관계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Model 2에 세 가지 학대피해와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상호작용 효과 모형(Model 3)을 설정하였다. 모형 검증을 통하여 보호요인으로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확인되는 경우, 학대 피해 아동의 공격성 발달을 막기 위한 개입방법 마련의 근거가 될 것이며 만약 그러한 조절효과가 학대 유형별로 달리 나타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개입 대상을 타겟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결과 또래애착이 신체적 학대와 공격성의 정적인 관계를 조절하는 보호요인임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공격성 증가를 또래애착 등 사회적 지지가

완충한다는 연구(신효정 & 이문희, 2014; Brewin et al., 200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신체적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높지만, 이 때 또래애착이 강한 아동이라면 그 공격성 증가가 둔화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최근 문제되는 아동 공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방안으로서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의 또래애착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령기인 아동기는 가족 체계를 벗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생태체계학적 시각에서도 또래애착 향상을 위한 개입은 더욱 적절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대피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서적 학대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호작용 모형(Model 3)에서 또래애착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다고 나타났으나 그 방향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나타나 구체적으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 분석을 거친 결과, 정서적 학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아동의 또래애착이 낮을 때 공격성이 낮았다. 이는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생각건대 또래와 부모 모두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도리어 아동이 공격성을 보인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Beal(2008)의 연구에서는 흑인 여성의 경우 인종 및 성적인 측면에서 이중으로 약자가 됨으로써 고립된 ‘이중위험’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부모와 또래로부터 고립된 아동 집단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피해 측정이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못한 연구 성과이며,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또래애착 증진이 공격성 증가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 마련돼야 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이들 피해 집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정성적 연구 등 학계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중복학대의 경우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도출된 회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모두 받은 중복학대의 경우 주효과 모형(Model 1)에서 β 값이 다른 피해 유형보다 높아 공격성을 더욱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애착이 그러한 강한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중복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단일 유형의 학대 피해의 영향보다 크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중복학대를 고려하여 학대 유형을 나눈 것이 유의미한 시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김재엽 & 최권호, 2012).

제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 방법론적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방법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 공격성·비행 등 부적응 발달 결과에 대한 연구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주로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아동기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폭력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비하여 아동기 공격성을 학문적으로 고찰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따라서 아직까지는 아동기 공격성에 관한 일반화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제외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신체적 학대, 중복학대 경험과 이들의 공격성의 정적인 관계 및 또래애착이 신체적 학대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보호요인에 대한 여러 가설 중 일부만이 입증되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본 연구는 아동에 특화된 연구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논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함의를 갖는다.

둘째, 학대가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발달 결과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다보니 학대 피해의 유형은 세분화하여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그 두 유형의 중복학대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였다. 자녀의 학대 피해에 관하여 최근에 피해를 유형화하고 중복학대까지 고려하는 연구가 점차 등장하고 있으나(김세원,

2016), 여전히 대다수의 연구들이 학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거나, 유형별로 구분을 시도하더라도 중복학대를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인식하고 보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신체적 학대와 중복학대 각각이 공격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짐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이들과 달리 정서적 학대의 경우 공격성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학대의 유형별로 공격성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학대의 여러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피해 아동의 각종 발달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필 것을 요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차별접촉이론과 관계되는 ‘친한 친구의 비행 수준’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즉 경쟁적 이론의 설명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회유대이론에서 강조하는 또래애착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래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음에 주목하여 다양한 문헌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이론과 대비되는 이론인 차별접촉이론에서 강조하는 비행친구의 영향 또한 또래애착의 일부로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이주리, 2008).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하고자 하는 또래애착과는 다른 특성을 띠며, 아동 발달에 미치는 비행친구의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할 때(황성현 & 이강훈, 2013), 이를 통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또래 간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아닌, 일상적인 또래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연구모형을 새로이 설정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2. 실천적 ·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인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고 이때 특히 그 피해 유형별로 효과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아동기는 가족체계 내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보호자인 부모와 수직적 관계가 강하므로 그 학대 피해를 발견하기 전에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 아동학대 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발견된 피해아동에 적절한 개입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되는 문제인 아동 공격성을 연구하며 부모의 신체적 학대와 중복학대(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이러한 공격성과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반하여 정서적 학대만 있는 경우 그 피해 아동의 공격성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 발달 문제에 관해 학대 유형별로 차별화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인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와 중복학대 피해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공격성 저하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대 피해 아동이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들이 스스로의 공격성 수준을 인지하고 그것이 높을 때에는 공격성을 저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발견된 이후 아동과의 상담이 이루어질 때 상담사는 이에 관한 심층 대화를 통해 아동의 긍정적 발달 결과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인물이 된다. 마땅히 이들을 위한 상담매뉴얼이 구축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아동 공격성 증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비하여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므로 이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신체적 학대 및 중복 학대 아동과 달리 높은 공격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추후 연구를 통하여 공격성 외에 우울, 자존감 하락 등 여타 부정적 발달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봄으로써 앞선 피해 집단과 차별화된 개입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그 결과의 성패가 대상자 선정이 얼마나 적합한가에 달렸다는 표적효율성(target efficiency) 개념과도 같은 맥락이다(정무성, 2003).

둘째, 신체적 학대의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된 또래애착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초등학생의 경우, 학령기에 해당하므로 가족 외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또래집단의 역할이 중요함은 익히 강조되어 왔다. 현재 학대 신고 이후 관련 기관에서는 학대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처벌 또는 양육 방식 개선을 위한 개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개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게 물었을 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후서비스로서 보호시설 확충이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조치보다도 스스로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매우 높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유경, 2008). 가해 부모에 대한 즉각적 개입이 필수적임은 분명하지만 피해 아동이 겪는 학대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데에는 아동이 속한 또 다른 체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또래와의 애착이 피해아동의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학대 피해 아동이 또래 간 관계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지지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등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시간 부모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그 영향으로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서적 학대피해 아동이 또래애착까지 낮을 때에는 개인 체계 외적인 지지를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하고 위축되어 도리어 공

격성이 매우 낮은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정서적 학대가 있더라도 또래애착이 높으면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주변 대인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등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보다 섬세한 접근과 자세가 요구될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대 피해 아동일수록, 건전한 사회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또래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봉사 활동 동아리 가입 및 활동 등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단계에서 정서적 학대 아동의 수가 신체적 학대 아동의 수에 비하여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만큼 이들 집단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복학대의 경우에는 앞서 두 피해 아동 집단보다 더욱 더 높은 공격성 발달 결과를 보이므로 더욱 집중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복학대를 당한 아동이 학대경험이 없는 아동 뿐 아니라 한 가지 학대를 당한 아동보다도 높은 우울, 공격성을 보이는 등 심각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겪는다는 선행연구들과도 연관이 깊다(Ney, Fung, & Wickett, 1994; Edwards et al., 2003).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또래애착이 이들 공격성을 낮춰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이 유의미할지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대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아동보호기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이 겪는 후유증을 완화하고 그들이 속한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현재 전체 서비스 중 50% 이상이 상담서비스이고 그 다음은 일시보호서비스(24.2%)와 심리치료서비스(12.2%)로, 상담을 통한 아동의 심리적 지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 결과 또래애착이 신체적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한편

친한 친구의 비행수준 또한 전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해 아동과의 상담이 유의미한 발달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족체계 내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의 또래관계가 건강한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하여야 한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학대 피해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또래관계가 주로 형성되는 학교에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아동 담임교사의 법적 의무도 없고 적절한 행동지침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발견된 피해 아동을 직접 담당·관리하는 아동보호기관의 주도하에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아동보호기관에서는 피해 아동에게 맞는 구체적인 또래애착 증진 방안들을 마련하고, 학교에서는 재량수업시간 제공, 동아리 활동 장려 등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되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공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역 편차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다음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초등학생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까지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국복지패널은 표집 기준이 아동의 '나이'가 아니라 아동이 조사 시점에서 재학 중인 '학년'이므로 초등학교 4,5,6학년 연령인 11~13세에 해당하더라도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은 조사대상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전국 아동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후 나이를 기준으로 표집하여 전국 아동을 보다 잘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에서도 10차년도 단일시점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횡단분석을 시행하였으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풍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연구가설을 설정 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인과관계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향후 다른 시점의 아동 코호트와의 비교하는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006년 제1차 조사와 2015년 제 10차 조사 단 두 번의 부가조사만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분석 및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동일한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 대상으로 한 보다 많은 시점의 자료가 구축된 이후에 지금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에서 측정되지 못한 중복학대 문제를

살펴보고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피해 수준을 측정한 변수를 피해 여부라는 이분 변수로 재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중복학대는 모두 그 피해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고 하더라도 아동마다 그 피해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발전시켜 중복학대를 고려한 상태에서도 각 유형별 피해여부와 그 수준을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해 수준에 따른 차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학대 피해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중복학대 피해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하였고 이 때 회귀계수 및 유의도를 통해서 해석하였다. 따라서 신체적 학대와 중복학대 등 학대 유형 내에서의 차이는 그 β 값의 비교를 통해 영향력의 차이를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대한 해석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섯째, 아동의 학대 피해에 대한 보호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 피해아동이 또래애착을 통해 공격성 발달이 완화된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어 아쉬운 면이 있다. 특히 피해 아동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복학대 아동 또한 피해로 인한 공격성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또래애착이 그러한 증가 속도를 낮춰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이 겪는 중복적 피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학대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 아동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최근 추세를 볼 때, 정서적 학대 아동 및 중복학대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개입이 필요할지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강미량, & 염시창. (2008).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31, 89.
- 강상경. (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나남.
-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교육부. (2017). **2017 1차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교육부.
- 구인회 · 박현선 · 정익중 · 김광혁(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권민정, & 박주희. (2015).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중학생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6(4), 71-89.
- 김미정, & 염동문. (2012). 아동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09-430.
- 김상원. (2007). 아동과 청소년 비행의 원인비교: 허쉬의 사회유대 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25-362.
- 김선주, & 김영희. (2012). 부모와 또래애착, 신체상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소년보호연구**, (20), 37-58.
- 김유경. (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30-43.
- 김주연, 도현심, 김민정, & 신나나. (2012).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 또래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3(1), 111-131.
- 김세원. (2016). 아동의 중복학대 피해 경험과 부모 및 가족 특성

- 에 대한 연구. 아동과 권리, 20, 583-608.
- 김태근 (2006). **U-Can 회귀분석**. 서울:인간과 복지.
- 김현실. (2003). 청소년기의 공격성: 기여 요인 및 관련 이론. **청소년행동연구**, 8.
- 류이근, 임인택, 임지선, 최현준, & 하어영. (2016).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른다**. 서울: 시대의창.
- 박주희, & 임양미. (2014).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사에 대한 친밀감과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3), 87-110.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 23-52.
- 박현수, & 정혜원. (2010).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1(2), 5-34.
- 보건복지부. (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서미정. (2012).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 및 고위험 변화집단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38), 157-186.
- 서울아동패널. (2005). “서울 아동발달 및 복지실태조사” 설문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서정호. (2017, June 30). [초등학생이 아프다] ⑤초등생 학교폭력 고교생의 7배...저학년 실태파악 전무. **YTN**. Retrieved November 19, 2017, from http://www.ytn.co.kr/_ln/0103_201706301752453306
- 손지윤. (2016, November 15). 아동학대 체감 비율, 실제 피해 아동 발견율보다 173배 높아. **팝콘뉴스**. Retrieved December 1, 2017, from http://www.popcornnews.net/sub_read.html?uid=14158
- 송지영, & 박성연. (2010).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3),

51-66.

- 신효정, & 이문희. (2014). 애착외상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1), 291-312.
- 심미영, & 정규석. (2007). 한국 청소년비행에 관한 Hirschi 이론의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2(3), 147-171.
- 안동현, 장화정, 이영애, 홍강의, 이재연, 이양희, 조홍식, & 광영숙. (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권리연구**, 7(1), 121-139.
- 양오석. (2013). 경영 연구를 위한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 검증 방법에 대한 엄밀성 제고.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78-508.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 하은혜. (1998).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연희. (2012). 피학대경험이 아동의 비행과 또래관계 소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실천**, 11, 95-117.
- 유순화. (200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에 의한 청소년 비행 예측. **청소년학연구**, 10(4), 289-315.
- 유안진, 이점숙, & 서주현. (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 윤혜미. (1997).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지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 95-120.
- 이명진, 조주연, & 최문경. (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4(2), 9-42.
- 이봉주, 손선옥, & 김윤지. (2015). 아동청소년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31, 37.

- 이순래, & 이경상. (2010). 생활긴장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5-32.
- 이아영, & 유서구. (2011). 부부간 폭력의 노출정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패널 자료 (KYPS) 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25-245.
- 이은해, 김정윤, & 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이재경. (2012). 청소년기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 **청소년복지연구**, 14(2), 51-73.
- 이주리. (2008).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27-39.
- 이지연. (2006). 발달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태준, & 권정혜. (2007). 피학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377-389.
- 이혜정, 위슬아, & 김범준. (2015).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 남녀 차이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75-695.
- 정기원, & 서현숙. (2007). 가정폭력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비행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노출 유형별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5), 49-73.
- 정무성. (2003).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의 대상자 선정행태와 표적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 115-135.
- 진혜민, &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최규련. (2010). 가족구조,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와 친구관

- 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7), 33-48.
- 최재용, 한보영, & 이윤호. (2014).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 비교: 일반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8(1), 35-65.
-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전망 2017**. 서울: 범신사.
- 한미현, &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상철, & 김판희. (2012).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자정능력 향상방안: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1, 121-145.
- 홍미, & 김효진. (2007).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47-59.
- 황성현, & 이강훈. (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Akers, R. 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 Beal, F. M. (2008). Double jeopardy: To be Black and female. *Meridians: feminism, race, transnationalism*, 8(2), 166-176.
- Bertalanffy, L. (1968). *General system theory : Foundations, development, applications*. New York: Braziller.
- Bierman, K. L., Bruschi, C., Domitrovich, C., Fang, G. Y., & Miller-Johnson, S. (2004). *Early disruptive behaviors associated with emerging antisocial behavior among girls*.
- Bornston, F. L., & Coleman, J. C. (1956). The

-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parents'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and the direction of aggression of their young adult offspr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1), 41-44.
- Brewin, C. R., Andrews, B., & Valentine, J. D. (2000). Meta-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auma-expose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748-766.
- Brooks, J. E. (2006). Strengthening resilience in children and youths: Maximizing opportunities through the schools. *Children and Schools*, 28(2), 69-76.
- Brown, S. E. (1984). Social class, child maltreatment,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22(2), 259-278.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4), 343.
- Calvete, E., & Orue, I. (2012).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predictive association betwee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6(5), 338-347.
- Chen, P., Coccaro, E. F., Lee, R., & Jacobson, K. C. (2012). Moderating effects of childhood maltreatment on associations betwee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adult agg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42(6), 1293-1304.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 *Hillsdale*. NJ: Lawrence

- Earlbaum Associates, 2.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 Colman, R. A., & Widom, C. S. (2004).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 Neglect*, 28(11), 1133-1151.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78-1683.
- Demuth, S.,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58-81.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 Edwards, V. J., Holden, G. W., Felitti, V. J., & Anda, R. F. (2003).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forms of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 mental health in community respondents: results from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8), 1453-1460.
- Emmerich, W. (1966). Continuity and stability in early social development: II. Teacher ratings. *Child Development*, 17-27.

-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31(1), 7-26.
- Fite, P. J., Rathert, J. L., Stoppelbein, L., & Greening, L. (2012). Social problems as a mediator of the link between reactive aggression and withdrawn/depressed sympto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184-189.
- Freeman, N., Hackley, S., & Corning, L. (2004). The Midlands Directors' Forum: Professional Development, Networking, and Peer Support. *Young Children*, 59(2), 82-86.
- Gagnon, C., Craig, W. M., Tremblay, R. E., Zhou, R. M., & Vitaro, F. (1995). Kindergarten predictors of boys' stable behavior problems at the end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6), 751-766.
- Garson, G. D. (2012). Testing statistical assumptions. *Asheboro, NC: Statistical Associates Publishing.*
- Graybill, D., MacKie, D. J., & House, A. E. (1985).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who were abused as childr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 Greene, R. R., Conrad, A. P., Livingstone, N. C., Barton, W. H., Watkins, M. L., Blundo, R., & Riley, J. G. (2002). Resiliency: An Integrated Approach to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8(3), 486.
- Haskett, M. E. (1990).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of you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Child Psychiatry*

- & *Human Development*, 21(2), 109-118.
- Higgins, D. J., & McCabe, M. P. (2001). Multiple form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dult retrospective report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6), 547-578.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Huesmann, L. R., Eron, L. D., Lefkowitz, M. M., & Walder, L. O.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120.
- Karriker-Jaffe, K. J.,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0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among youth in rural area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8), 1227.
- Kempe, C. H., & Helfer, R. E. (1974). *The Battered Child (1st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line, R. B.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역. (2010).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학지사.
- Kupersmidt, J. B., Burchinal, M., & Patterson, C. J. (1995). Developmental patterns of childhood peer relations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825-843.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371-410.
- Luntz, B. K., & Widom, C. S. (1994).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grown up.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1(5), 670-674.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ercy, J. A., Rosenberg, M. L., Powell, K. E., Broome, C. V., & Roper, W. L. (1993). Public health policy for preventing violence. *Health Affairs*, 12(4), 7-29.
- Muller, R. T., Sicoli, L. A., & Lemieux, K. E. (2000).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among adults who report the experience of childhood abu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2), 321-332.
- Nagin, D., & Tremblay, R. E. (1999). Trajectories of boys' physical aggression, opposition, and hyperactivity on the path to physically violent and nonviolent juvenile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70(5), 1181-1196.
- Ney, P. G., Fung, T., & Wickett, A. R. (1994). The worst combination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18(9), 705-714.
- Olson, J., & Goddard, H. W. (2003). *An Ecological Risk/Protective Factor Approach to Understanding*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In Aggressive behavior* (pp. 97-130). Springer US.
- Orpinas, P., & Frankowski, R.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Piaget, J. (1964). Part I: Cognitive development in children: Piaget development and learning.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2(3), 176-186.
- Pianta, R. C., & Walsh, D. J. (1998). Applying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n schools: Cautions from a developmental systems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Review*, 27(3), 407.
- Reed-Victor, E., & Stronge, J. H. (2002). Homeless students and resilience: Staff perspectives on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Children and Poverty*, 8(2), 159-173.
- Reidy, T. J. (1977). The aggressive characteristics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1140-1145.
- Rivera, B., & Widom, C. S. (1990). Childhood victimization and violent offending. *Violence and victims*, 5(1), 19-35.
- Starr, R., & Wolfe, D. A. (Eds.). (1991).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sues and research*. Guilford Press.
- Sutherland, E. H., Cressey, D. R., & Luckenbill, D.

- (1995). The theory of differential association. *Deviance: a symbolic interactionist approach*. General Hall, Lanham, 64-68.
- Tremblay, R. E., Masse, L. C., Pagani, L., & Vitaro, F. (1996). *From childhood physical aggression to adolescent maladjustment: the Montreal prevention experiment*.
- Vitaro, F., Larocque, D., Janosz, M., & Tremblay, R. E. (2001). Negative social experiences and dropping out of school. *Educational psychology*, 21(4), 401-415.

Abstract

Effects of Parental Abuse on Child Aggression

: Focusing on the moderate effect of
peer attachment

Park, Dahy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whether child aggression is affected by the abuse of children by their parent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multiple types. In this study, we used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o see if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or the co-occurrence of the two respectively has an effect on child aggression. Therefore,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s there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 abuse by their parents and aggression demonstrated by the child? **(2)** Is there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s peer attachment and aggression demonstrated by the child? **(3)** Does the

child's peer attachment moderate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 abuse by their parents and aggression demonstrated by the child?

As there are several different forms of child abuse, the first and the third research questions are again divided into three smaller ones, each of them representing a specific type of abuse such as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the co-occurrence of the two, as mentioned above.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is largely founded on Agnew's General Strain Theory(GST) and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10th Korea Welfare Panel Study conducted in 2015. While the Panel study collects household data annually, it conducts an additional survey every three years on children that belong to families under specific research. Here, 406 children were chosen as research subjec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test research questions.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findings:

First, under control of control variables, it was shown that a physically abused child is more aggressive than a child who has not been abused, as is a child that was abused bo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However, emotional abuse by itself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 child's aggression.

Second, we did not fi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 child's peer attachment and their aggression in this

study while controlling all other variables.

Third, as for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buse by parents and child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was verified. This means that when a child is physically abused by their parents, their peer attachment has a buffering effect on their increasing aggression. This suggests that peer attachment could serve as a protective factor in aggression displayed by children that have been physically abused. We could not, however, find the same effect of peer attachment within the group of children who have been abused bo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Although no positive correlation was detected between emotional abuse and child aggression, additional analysis on peer attachment revealed an unexpected result. A closer look at the interaction effect of peer attachment and emotional abuse showed lower level of aggression in the group of children who have been emotionally abused and have significantly low peer attachment – in other words, severely disheartened. It was also statistically proven that children who have been emotionally abused are strongly influenced by peer attachment. Compared to those who have not been emotionally abused, children who have been emotionally abused showed a greater difference in aggression depending on their levels of peer attachment.

So far, studies in this field were focused on the broad effect of child abuse on their development, despite the fact that child abuse takes place in many different ways.

This study hence tried to separate the specific types of abuse and examine the effect of each on child aggression, hoping to support the idea that different treatment methods should be applied to victims of different kinds of abuse. Ultimately,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was intended to find peer attachment as a valid outer resource for children abused within their family while focusing on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ich has recently been brought up as a social problem.

Meanwhile, this study has a few limitations. First of all, a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ollected by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vers only those children who are currently attending school, the findings above cannot provide an explanation for those who are out of school. The second limitation is that peer attachment is verified as a protective factor solely for the physically abused group and not for other groups. Therefore, more academic effort must be made to reveal the same effect in other abused groups. Last but not least, as this study is cross-sectional, there should be a longitudinal study ranging over several years with more accumulated panel data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everity of child abuse.

Keywords: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multiple abuse, peer attachmen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Student Number: 2016-20209